

북한 주민들을 위한 선언

문화 민족에게는 무책임하고 어두운 욕망을 지닌 통제 세력에게 지배당하는 것만큼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다. 비단 모든 진실한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정부를 부끄러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 다른 것이 시작되기까지 그저 기다리고만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희생자가 정신을 잃고 무자비한 악마의 목구멍 속에 던져진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며 인류의 폭력과 독재자, 이 모든 독재 정부와 유사한 시스템에 반대편에 서야 한다. 저항하라. -저항- , 너희가 항상 있는 곳에서부터. 모든 민족은 마땅히 자신들을 지지하고 그를 위해 봉사하는 정부가 있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만약 이 격동의 물결이 한 나라에서 일어난다면,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모든 사람이 참여한다면, 폭력적인 고통을 주는 이 시스템은 무너질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 흉악한 정부가 더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근절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눈이 완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바로 이 무리를 뿌리 뽑을 가장 적합한 시기인 것이다. 사람들이 폭군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유일한, 가장 높은, 신성한 의무는 이 짐승을 찢어 죽이는 일일 것이다. 우리의 현재 국가는 악의 독재자이다. 시스템을 감시한다는 것은 당신의 고유한 권한일 뿐 아니라 도덕적 의무이다. 만약 한 인간이 권리를 요구하는 이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는 절대적 필연성에 속박될 것이다.

명철함의 외투 아래 당신들의 비겁함을 숨기지 마라. 왜냐하면 매일 당신들이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옥의 악에 맞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의 죄가 늘어가는 것이다. 아마 이 선언문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 잘 모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독재 권력의 몰락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 주고자 한다. 개인화된 적대심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과의, 활동적인 사람들과의, 어떤 수단을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단결된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 저항의 의미와 목표는 독재자를 쓰러뜨리기 위함이며 이 전투 속에서는 물러설 길도 행위도 없다. 논박의 여지가 있다면, 독재자는 전방향적으로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이 비인간적인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사라져야 한다. 어떻게 사람들이 현재의 국가에 대항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정부를 가장 적합하게 타격할 수 있을까.

지배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거짓말이다. 그의 입은 가장 더러운 지옥의 목구멍이다. 때문에 그의 권력은 부패하였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도구 삼아 이 전체주의의 테러 국가에 반하여 싸움을 이끌어야 한다. 누군가 지금 현재 악한 권력의 존재를 의심하고만 있다면 그는 이 형이상학적 싸움의 배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악을,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는 곳에서부터 공격해야 한다. 그것은 폭군의 힘 속에서 가장 강력하다.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데, 북한 국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행동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증명하라. 깨어있는 국민들은 우리와 같은 편에 서서 싸우고 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평등의 외투를 찢어라. 모든 중심화된 권력은 초토화 되어야 한다. 북한은 연방화 되어야 한다. 발언의 자유, 믿음의 자유, 범죄적 폭력 국가의 횡포로부터 각각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의 기초 토대이다.

우리를 위한 한 가지 슬로건이 있다. 독재자를 대항하여 싸워라. 그 어떤 위협도, 학교의 폐쇄도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끝까지 일어서, 복수하고, 속죄하지 않는다면 북한이란 이름은 늘 불명예로 남아 죄책감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눈 앞에 북한이 보인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정신의 힘에서 비롯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 저항적 행동을 지지하고 선언서를 유포하라.